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론, 세션 5, 교부 그리스도론, 파트 4, 단일성론 과 칼케돈 공의회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교부 그리스도론, 파트 4, 단일성론 과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자비로운 아버지, 고대 교회의 그리스도론을 공부하는 것에서 현대 신학의
그리스도론으로 옮겨가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험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교부 그리스도론을 마무리하고
, 위대한 칼케돈 공의회와 그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다루어야 할
또 다른 이단은 단성론 또는 유티 케이스 주의입니다 . 저는 왜 우리 교수와
은퇴한 교수들이 이런 큰 단어를 좋아하는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용해 주기 때문에
그들을 좋아합니다. 단일성설은 콘스탄티노플의 장로이자 수도원의
지도자였던 유티키우스 (380-456)와 동일시되는데, 그는 451년 칼케돈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유티키우스는 성육신의 결과로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이 받아들여지고 흡수되어 신성한 본성과 합쳐져서 두 본성이 하나의
새로운 본성으로 바뀌었고, 그 본성은 이제 일종의 신-인간 복합체가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단일성설 (Monophysitism) 이라고도 불리며 , 성육신한 그리스도는 하나, M
anos, 본성, Fosis를 가지고 있었으며 , 두 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를 신도 사람도 아닌 혼종체로 만듭니다.

에우티키우스의 견해는 기본적으로 육신 그리스도론이라는 단어의 한 버전입니다.

샌더스가 지적했듯이, 유티키우스에게 있어서 두 본성의 의미는 인용문에서 신성과 인간성으로 동등하게 식별 가능한 제3의 실체를 생산하지 않는다. 신성은 인간성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에 유티키우스적 본성 혼합의 결과는 균등한 합성물이 아니라 대체로 신성했던 그리스도이다. 이 관점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새로운 본성에서 압도적인 신성과 잠긴 인간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는 비슷하다.

아마도 더 일관되게, 후기의 단성론자들은 두 본성의 결합이 *tertium quid*, 즉 문자 그대로 세 번째의 다른 무언가, 신성도 인간성도 아닌 세 번째 무언가를 낳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단성론의 결과는 그리스도가 참된 신도 참된 인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어긋나고 구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남겨두는 견해입니다. 칼케돈 공의회 451, 그리스도론적 정통주의.

451년 10월, 520명의 주교가 칼케돈에 모여 교회 내에서 진행 중인 그리스도론적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교회의 주교 대부분은 동방에서 왔고, 서방에서 온 주교는 4명, 북아프리카에서 온 주교 2명, 그리고 로마의 레오 교황의 특사 2명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방의 영향력은 레오의 책 덕분에 컸습니다. 이 책은 공의회 이전에 쓰여졌고 칼케돈 신조에 통합되었습니다.

이전의 니케아 신조와 마찬가지로, 칼케돈 신조의 정의, 즉 신조의 이름은 수십 년 동안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제쳐두어지지 않았고, 브라운이 지적했듯이, 그것은 초기 기독교 신학의 두 번째 위대한 정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통교회의 불멸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가까이 인용하자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두 본성, 한 인격이라는 고전적 공식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전의 모든 거짓 그리스도론적 관점을 거부하고 일련의 진술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격을 명확히 구별했습니다. 브라운 인격과 관련하여 그것은 성육신의 능동적 주체인 "하나이신 동일한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성령과 동일한 본질이지만 이제 완전한 인간 본성을 취하여 두 가지 본성으로 존재하며, 그 본성은 혼동되거나 변하지 않지만 모든 속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케돈 신조는 칼케돈 정의에서 언급하고, 따라서 교부들과 일치하여 인용하자면, 우리 모두는 만장일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동일한 아들이며, 신격에 있어서 동일한 완전한 분이고, 인격에 있어서 동일한 완전한 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이성적인 영혼과 육신을 가지셨으며, 신격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인격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본질이심을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고, 신격에 있어서는 세상 전에 성부에게서 나셨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동일한 분이시며, 인격 에 있어서는 테오토코스 , 신을 낳으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한 분이고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자이시며,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두 본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 두 가지 외적인 것은 혼동 없이, 변화 없이 유티케스주의 또는 단일성설 에 반대합니다 .

두 번째 두 가지는 네스토리우스주의에 반대하며,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주장합니다. 연합으로 인해 본성의 차이가 결코 없어지지 않고, 각 본성의 속성이 보존되고 하나의 프로소폰과 하나의 하이포스타시스로 합쳐지며, 한 인격이 두 개의 프로소포폰 으로 분리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 오직 한 분의 동일한 아들, 독생자, 신성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우리 조상의 신조가 전해준 바와 같습니다." 인용문 닫기.

칼케돈의 중요성과 주요 그리스도론적 요점. 칼케돈은 왜 중요한가?
이러한 이유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교회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를 요약하고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추측을 억제하고 동서양 간의 언어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그 자체로 그것은 방어적인 확정적 진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이후의 그리스도론적 성찰을 위한 로드맵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현대에 와서 보면, 그것이 일반적으로 거부되고, 그 자리에 놓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이 있고, 예수는 아무리 위대하더라도 단순한 사람일 뿐입니다.

칼케돈은 도케타주의, 입양주의, 양태론, 아리우스주의, 아폴리나리우스주의, 네스토리우스주의, 단일신론에 대해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도케타주의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인간성, 남성성, 인간성, 진정한 인간성, 동일본질, 동질성, 그의 인간성 또는 인간성에 따라 우리와 함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칼케돈은 입양설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은 로고스의 개인적 실존을 주장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시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서 초월하여 거하시고 능력을 주신, 아니, 하나님이 입양하신, 아니.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모달리즘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칭호와 아버지가 세상이 있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언급을 통해 아들을 아버지와 구별했습니다. 아리우스주의는 주 예수님이 신성에서 완전하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확인했습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주 예수님이, 인용하자면,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를 가진 참 사람이시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인격을 지녔다고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가 인간의 육체를 취했지만 인간의 영혼은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로고스는 예수 안에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부인하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어야 했고, 그가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 그의 동료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단지 인간일 뿐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진정한 인간이 되었고, 진정한 인간 본성을 취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는 마리아를 테오토코스, 즉 신을 낳은 자로 긍정했는데,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진정한 신성과 실제 성육신의 사실을 긍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태중에 품은 아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는 신의 태아, 신의 태아, 신의 아기였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신의 섭리에 의한 테오토코스입니다.

그녀는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촌을 방문했을 때와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마리아가 엘리자베스를 방문했을 때와 같이,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낳은 자임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인정했습니다.

마리아를 높이거나 그녀를 기도나 중재나 예배나 숭배나 그런 것의 대상으로 삼지 않지만, 그녀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신성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칼케돈 정의는 또한 하나의 동일한 아들과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실체에 대해 말했는데, 두 인격으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았으며, 그 본성은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동일성에 대한 강조는 실제로 지치고 네스토리우스에 반대합니다.

단일성설은 그리스도 안에는 혼동이나 변화 없이 두 본성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각 본성의 속성은 한 인격 안에서 보존되고 일치합니다. 칼케돈은 훌륭한 업적이었습니다.

다섯 가지 요점이 정의의 핵심을 포착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칼빈주의가 아니라 칼케돈 정통주의의 다섯 가지 요점에 대한 메시지이자 강의입니다. 개혁된 친구들을 위한 작은 말장난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참으로 완벽하게 신이자 인간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모두 동등하게 보존되고 강조되어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자 중재자로서 봉사하고 우리를 위해 구원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인격과 위격은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칼케돈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제공합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추론할 수 없거나 두 본성의 결합에서 나온 세 번째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 그 자체로 원칙으로 간주됩니다. 새로운 사람은 인간 본성을 가정할 때 존재하지 않으며, 두 사람이 되는 결과도 없습니다.

대신 칼케돈은 성육신의 인격이 영원한 아들, 즉 신격의 두 번째 인격이라고 확언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체계론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의 연속성은 그의 인간성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에 의해 제공된다고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성육신 이전의 아들이었고, 그런 다음 그는 성육신한 아들이 됩니다.

인류는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육신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신성한 아들도 연속적입니다.

그에게는 그와 별개의 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인격이 진정한 인간성을 자신에게 취합니다. 더욱이, 육신이 된 것은 인격이지, 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의도적이고 자발적이며 희생적인 방식으로 종의 형상을 취하신 아들의 개인적 행위입니다(히브리서 2:7). 아들의 인격은 행동하는 유일한 행위자이자 고통받는 주체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변화를 의미합니까? 아들의 인격이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거나 항상 그랬던 것을 멈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육신한 아들이자 그는 모든 신성한 속성을 계속 소유하고 그의 모든 신성한 기능과 특권을 수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맥클라우드가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그리고 제가 인용했듯이,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범위의 경험과 관계에 들어가신다는 의미에서 변화입니다.

그는 인간의 몸과 인간의 영혼 속에서 삶을 경험합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는 빈곤, 외로움, 굴욕을 겪습니다.

그는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성육신 전에, 성육신과 별개로, 신은 관찰을 통해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찰은, 그것이 전지전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경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신에게 가능하게 한 것, 즉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개인적 경험입니다. 도날드 맥클라우드는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는 경건하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그 자체의 실체 혹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사람이 없었다는 의미에서 비인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간적 본성은 실체 혹은 그 자체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는 아들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는 아들이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신성한 행동 없이는 인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의 결과로, 영원부터 신성한 본성을 소유했던 아들은 이제 자신에게 완전한 인간적 속성을 지닌 인간적 본성을 더하여, 그가 완전한 인간적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 본성에 의해 완전히 제한되거나 제한받지는 않았습니다. Fairbairn이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교부들이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다른 일을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인간에게 적합한 일을 했고, 하나님께만 적합하거나 가능한 다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은 같은 하나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 내주하는 단순한 사람 이상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들이고, 사람으로서 지상에 살고, 주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합니다.

칼케돈의 함축 중 하나는 성경에 확실히 부합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마다 누가 이것을 했는지, 누가 이것을 말했는지, 누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답은 항상 같습니다. 아들 하나님입니다. 왜?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신성하거나 인간적인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성과 인간성을 통해 행동하는 아들의 인격입니다. 태어나고, 세례를 받고, 유혹을 받고, 변형되고, 배신당하고, 체포되고, 정죄받고, 죽으신 분이 바로 아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 피를 흘린 분이 바로 아들입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충족되어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도 아들이시고,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맥클라우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널드 맥클라우드의 책, *그리스도의 인격*은 출판된 이후로 제 필수 교과서였습니다.

다시 그를 인용하면,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심지어 그가 요구하는 속죄가 되십니다. 그 안에서, 그의 육신 안에서, 그의 삶의 유한성 안에서, 그의 몸의 유한성 안에서, 그의 인간성의 유한성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루셨습니다. 그는 사람이지만, 그의 인간성이 어떤 의미에서든 무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성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인간적 존재로 사십니다." 맥클라우드, *그리스도의 인격*, 190쪽. 넷째, 두 본성의 완전성을 가리는 본성의 결합은 없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은 보존됩니다. 본성의 혼합이나 속성의 이전,

소통은 없습니다. idiomatum , 어떤 종류의 tertium quid, 어떤 종류의 third something else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본성이 단순히 나란히 놓여 있고 접촉이나 상호 작용 없이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본성의 속성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한다는 점에서 속성의 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주를 동시에 지탱할 수 있고, 골로새서 1:17, 죄를 용서하고, 마가복음 2:10, 주리고 목마르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고, 누가복음 2:52,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번 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우주를 동시에 지탱할 수 있고, 골로새서 1:17, 죄를 용서하고, 마가복음 2:10, 우리가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잭, 미안해요, 형님,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니, 사람아,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이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기적이에요. 보이는 기적을 행할게요,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네 침상을 치우고 걸어가라. 그것이 그가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죄를 용서한다.

동시에, 우주를 떠받치고 죄를 용서하는 이 신-인간은 배고프고 목마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그는 여행으로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입습니다(누가복음 2:52). 심지어 그는 죽을 수도 있었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이 모든 행위와 경험에서 성육신의 주체가 된 이유이며, 두 본성을 포함하고,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칼 바르트가 나중에 성육신한 아들에서 이 요점을 표현했듯이 "이 사람이 인간의 말로 말할 때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자신이 행동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

승리할 때 하나님 자신이 승리합니다.” *교회 교의학* 4. 2.

다섯째, 아들은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완전한 인간 본성을 취했습니다. 칼케돈은 예수의 인간성이 완전한 인간성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비슷한 완전한 인간 심리학으로 구성되어야 했습니다. 칼케돈은 사람을 영혼과 명확히 구별하고, 영혼을 인간 본성의 일부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단순히 육체 그리스도론이 아닌 인간 그리스도론이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그 단어는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취한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완전한 인간 본성을 취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인간의 영혼을 대체한다는 생각을 거부합니다. 아들 또는 로고스가 그것을 대체하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나중에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주장합니다.

상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했을 때, 신학은 도처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것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가 인간의 의지와 마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이 후자의 확언은 681년 제6차 세계 공의회가 될 때까지 공식화되거나 형식화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다섯 가지 요점은 칼케돈 정의의 핵심을 포착합니다.

신조가 권위 면에서 성경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고, 옹호해야 할 기본 사항을 제시하는 진술입니다. 고백적 진술로서, 그것은 교회가 성경의 예수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해 신학화해야 할 매개변수를 확립합니다. 칼케돈 서문에서 주장하듯이, 그것은 성경과 교부 전통 전체를 배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릴마이어가 지적 했듯이 , “칼케돈 공의회만큼 전통에 뿌리를 둔 공의회는 거의 없습니다. 인용문. 브라운이 인정했듯이, 칼케돈 정의

인용문인 해럴드 OJ 브라운은 정통성을 측정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그의 인간성에 대한 확언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정통성이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케돈 신조는 신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련의 한계입니다. 신학은 거의 변함없이 회의주의, 불신앙 또는 이단으로 타락할 것입니다. ” 신조, 공의회, 그리고 그리스도는 브라운의 책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했지만, 특히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이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대부분은 역사적 기독교를 거부하고 다른 세계관으로 대체하는 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일부 사람들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교부들의 그리스도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비판 중 일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칼케돈이 ousia , apostasis , et cetera, essence, being, nature, 등등, person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그리스 철학적 사고에 의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에 따르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성경적 가르침이 의도치 않게 왜곡되었고, 그리스도론은 형이상학적 추측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비판은 부정확합니다. 한편으로, 문제는 모든 신학이 필연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 외의 철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문제는 그 언어가 어느 세기에서 가져온 것이든 성경적 언어와 가르침을 왜곡하는지 여부입니다.

반면에 5세기의 단어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칼케돈은 매우 그리스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것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시된 대로 그리스 사상에는 자연-인격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경이 요구했기 때문에 ousia , 자연과 apostasis , 인격을 구분했습니다.

게다가, 맥클라우드의 통찰력 있게 지적하듯이, 칼케돈 신학은 근본적으로 반그리스적입니다. 도널드 맥클라우드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인용하면, 그리스 신학은 신의 현현, 즉 인간 형상의 신과 신이 인간 성격을 통제할

수 있는 신적 입양이라는 개념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칼케돈은 성육신의 언어입니다.

육화 에 대해 말합니다 .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 지상의 역사적 존재로 들어가셔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특정 개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인간적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현과 입양을 훨씬 넘어섭니다.

MacLeod가 말했듯이, 제가 보기에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리스적이지 않은 개념입니다. 인용문. 하지만 이 비판은 더 나아가 칼케돈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5세기 용어를 현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의 반대와 관련이 있다고 Wellum은 주장합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postasis 와 ousia , 그리고 그것들을 뒷받침하는 형이상학을 더 현대적인 어휘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이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MacLeod가 가능하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상기시키듯이, ousia , fosis , apostasis 의 언어를 우리 시대로 끌어올리는 것이 예를 들어 St. Paul, morphe , homoioma , acone의 언어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역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단순히 오래된 용어를 새로운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어의 의미를 바꾸고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칼케돈은 또한 이원론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왔습니다.

그것은 두 본성을 한 사람 안에 나란히 두는 것처럼 보이며, 각 본성은 고유한 속성을 반환하고 고유한 속성을 유지하여 예수의 존재의 일부 측면을 그의 인간적 본성에, 다른 측면을 그의 신적 본성에 귀속시키는 관행으로 이어지고, 그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감정성과 불변성의 경우, 레오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한 본성에서는 죽음을 당할 수 있었고 다른 본성에서는 죽음을 당할 수 없었다고 확인합니다. 칼케돈은 역사적 예수가 신이자 인간으로서 일종의 이중적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반대에 답하는 것은 우리를 성육신에 대한 신학의 핵심으로 인도합니다. 이 비판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그리스도론적 공식화가 구분됩니다. 이 시점에서 칼케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질문에 성경적이지 않게 답하려는 다양한 이단적 시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실, 칼케돈은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와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칼케돈은 성경과 함께 한 신성한 인격, 즉 성자의 통일성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데, 성육신의 결과로 이제 성육신하신 성자는 살아 계시고 두 본성으로 존재합니다.

성경과 칼케돈은 그리스도의 이중적 본성을 혼합하거나 이러한 본성 안에서 그리고 이러한 본성을 통해 행동하는 사람의 통일성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또한 맥클라우드는 주장하듯이 칼케돈은 예수라는 사람의 실존적 통일성을 긍정적으로 주장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본성이 있지만, 단 하나의 hypostasis 또는 prosopon, 즉 한 사람만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도 통일을 강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신비를 존중합니다. 나는 내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거대한 신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삼위 일체성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두 본성입니다. 결국 칼케돈은 성경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이 그 사람의 행동이라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모든 행동의 대리인이고, 모든 말씀의 화자이며, 모든 경험의 주체입니다.

결과적으로 칼케돈은 우리 주님의 행동, 말씀, 경험을 두 본성 사이에 나누어 놓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이원론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제시에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 역할을 합니다.

신비를 설명하는 것은 범법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신적으로 계시된 신비가 있다면, 우리는 확언을 하고, 오류를 배제하고, 그런 다음 우리 자신의 무지와 성경의 역설, 신비, 모순을 존중합니다. 저는 그것을 표현할 좋은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셋째, 이원론의 비난과 유사하게, 칼케돈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을 긍정함에도 불구하고 가현설적이라는 비판을 종종 받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신조가 인간적 인격이 없는 가정되지 않은 인간적 본성, 즉 실체, 즉 비인격적 인간성을 언급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의가 제기하는 바와 같이, 만약 그 본성이 우리와 같이 기능할 수 없다면, 즉 일반적으로 인간적 인격에 대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능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포함하여 완전하고 완전한 본성을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두 주체나 두 인격을 낳지 않고, 따라서 네스토리우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인간 예수의 자기 활성화적 성격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칼케돈이 그리스도가 인간적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은 가현설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비난의 핵심은 예수의 인간적 한계, 특히 그의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32, 누가복음 2:52를 보십시오. 성육신의 행위 주체가 신성한 아들이라면 말입니다. 나중에 체계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지만, 지금은 칼케돈이 히포스타시아를 확언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두 행위 주체를 부인하고 네스토리우스주의를 거부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도의 인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인간적 본성은 비인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것이 결코 비인격적이지 않았고, 존재하지 않았으며, 마리아의 자궁에서 존재한 나노초부터 말씀과의 결합으로 인해 인격적이었다고 말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요점을 이해하지만, 그들의 요점은 결국에만 있는 비판이 아닌 이런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아들의 인격과 함께 인간적 인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예수가 사실상 성육신한 아들이 아니라 단순히 아들과 특별히 친밀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칼케돈이 인격을 심리적인 의미가 아닌 존재론적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간 심리학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칼케돈은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적 경험의 유일한 활동적 주체가 신성한 아들이었고 따라서 실제적 성육신이 일어났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hypostasia를 좋아합니까? 아니요, 아들의 인간성은 비인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것이 말하는 바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신 예수라는 별도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반면에 그의 인간성은 결코 별개의 사람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그의 인격이 참된 인간성을 취한 신성한 아들의 인격이었다는 의미에서 결코 비인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의 인간적 본성은 하이픈으로 인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엘 마스크엘은 "칼케돈은 진실이며 진실 그 자체일 뿐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잘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칼케돈은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그리스도론적 논의가 지금 일어나는 보호막을 설치합니다. 보호막 안에 머물렀으면 좋았을 텐데, 보호막 안에. 당신이 볼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오, 세상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지만, 우리는 칼케돈의 정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칼케돈에 비추어 성경에 대한 추가 성찰이며, 사실 이것이 바로 교회 역사의 그 이후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칼케돈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모든 논의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더 많은 질문과 도전에 비추어 더 많은 생각을 계속 인도하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으로 교부 그리스도론에 대한 제 조사를 마칩니다.

현대 그리스도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배경을 설명하고 시간 순서를 약간 벗어나서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예수의 삶 운동.

19세기에 성경에 대한 새로운 태도, 즉 비판적인 태도의 가장 확실한 결과는, 18세기에 확실히 넘어갈 것입니다. 예수의 삶이 폭발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19세기는 전체적으로 역사적 사물에 대한 관심이 극적으로 갱신되고 역사적 방법론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지만, 18세기에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역사는 철학의 확실성도 과학의 정밀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볼테르는 당대 최고의 역사가라는 명성을 얻었지만, 대부분의 삶을 철학에 바쳤고, 마지막에야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칸트는 역사에 무관심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폄하했다.

19세기에는 이러한 태도가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헤겔과 마르크스에게 역사는 철학을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헤겔에게 역사는 현실이 구조화되는 합리적 원리가 우리의 연구를 위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마르크스에게 역사는 모든 사회가 결정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마르크스는 헤겔을 뒤집어엎었다고 자랑했지만, 인간 이해에 대한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높은 평가는 헤겔의 평가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이러한 갱신은 차례로 주제에 대한 존경을 얻을 수 있는 더 수용 가능한 연구 방법에 대한 탐색을 자극했습니다.

폰 란케와 같은 학자들의 경우, 이는 출처 자료에 대한 철저한 분석, 과학적 기술과 객관성이 역사적 분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종종 인간 본성의 능력에 대한 엄청난 확신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문제는 인간의 일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방식으로 과학적 분석에 취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증주의 역사가들이 사용한 소위 객관적 기술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고, 이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중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당혹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역사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그 연구를 위한 새로운 기법이 신학으로 넘어갔고, 신학은 성경에 대한 비판적 연구와 합쳐졌습니다. 이러한 학문의 교차 수분이 예수 문학의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문학이 번성했던 분위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20세기 초에 출판된 아돌프 하르낙의 기독교란 무엇인가?에서 가장 잘 표현되었습니다. 하르낙의 책은 현대인들에게 예수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의 비극적인 감각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그가 살았던 시대만큼이나 그들에게 무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르낙이 시도한 것은 기독교의 의미를 사상으로 포착하는 것이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 실현되었지만 예수에 의해 정의되거나 예수에 국한되지 않은 사상이었다. 여기에 하르낙의 분석의 핵심이 있었고 이것이 개신교 자유주의의 프로그램이었다.

기독교는 예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었지만 예수가 그 의미를 정의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식화는 변증적 동기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나온 기독교가 술라이어마허가 인용한 교양 있는 멸시자들의 규범에 더 쉽게 부합할 것이라는 희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하르낙이 자신이 역사 과학의 방법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렸고, 변증가나 종교 철학자로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변증가나 종교 철학자였습니다.

그것은 모더니즘의 본질적인 맹목성입니다.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예수의 삶을 쓰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니엘 파울스가 말했듯이, 이것은 모든 유형의 작가, 신앙심이 깊은

작가, 급진적인 작가, 성직자 또는 괴짜가 조만간 끌리는 주제 인용문이었습니다.

Gauguel 등 의 새로운 잘 알려진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 영국에서는 JR Sealey, Richard Hansen, FW Farrar, 그리고 보수적인 Alfred Edersheim 의 연구가 더 널리 유포되었습니다. Albert Schweitzer는 이 운동을 스스로 중단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마지못해 믿지 않는 사람인 듯하지만, 그는 음악, 의학,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진 천재였으며 의료 선교를 위해 아프리카로 가서 결국 창조물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범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주로 독일 에서 쓰여진 작품에 대한 철저하고 때로는 지루한 검토 끝에 그는 저자들이 진정한 역사를 가볍게 다루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용문 달기 인용문 복음서의 기록에 예수에 대한 상상적이고 이상화된 그림을 넣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에서 나온 예수는 그것을 쓴 자유주의 작가들과 너무나 비슷해서 슈바이처는 그들이 인간 역사의 긴 우물을 내려다보며 바닥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을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가 거짓 예언자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천재가 되는 것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비교해 보면, 많은 천재들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쩌면 천재들보다 더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는 "합리주의에 의해 디자인된 인물로, 자유주의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았으며, 현대 신학에 의해 역사적 옷차림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오, 그는 훌륭합니까? 그는 이제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에 의해 산산이 조각나고, 인용문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인물이었으며, 그 결과 이 인용문은 반은 역사적, 반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예수 슈바이처는 자신의

구성에 영감을 준 신학적 기대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슈바이처가 비난한 근본적인 실수는 예수가 현대인으로 분장했다면 그가 있는 그대로 남겨지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이 운동의 진짜 의미는 역사적 발견에 있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발견은 기껏해야 최소한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전통적 교리의 속박을 끊으려는 정교한 시도였으며, 계몽주의 전제에 따라 수행된 시도였다. 역사는 현실의 열쇠라고 생각되었다. 이것은 현실의 단단한 바위에 좌초된 매우 순진한 가정이었고, 슈바이처에 의해 무례하게 종말을 선언했다.

이 운동의 비참한 실패는 신학계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저는 자유주의 개신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론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5, 교부 그리스도론, 4부, 단일성론 과 칼케돈 공의회입니다.